

LED 3D TV 시장경쟁 점화

삼성전자 이어 LG 시장 참여 ... 풀LED 방식으로 차별화

LG전자가 풀LED(Light Emitting Diode) 방식의 3D TV를 내놓는 것으로 능동형 3D TV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LG전자는 3월25일 양재동 서초 R&D캠퍼스에서 인피니아 풀LED 3D TV를 공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CD 패널 뒷부분 전면에 LED 소자를 부착해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는 풀LED 방식으로, 2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에지방식(패널의 테두리에만 LED 소자를 붙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풀LED는 에지 LED TV의 600만대 1보다 높은 1000만대 1의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또 1초에 60장인 3D 영상신호를 받아 480장의 화면으로 구현해 3D TV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영상겹침현상(크로스 토크)을 줄이는 트루모션 480헤르츠(Hz) 기술이 채용됐다.

이밖에 3D 카메라로 촬영해 메모리 카드를 TV에 연결하면 PC를 통한 변환작업 없이 곧바로 TV에서 영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브랜드로는 기존의 <엑스캔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엄 TV 제품용으로 새로 도입한 <인피니아>와 LG로고를 사용한다.

출하가격은 470만원대, 630만대인 47, 55인치 풀LED 3D TV를 사면 안경 2개를 제공하고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에는 개당 12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010년 380만대로 예상되는 글로벌 3D TV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5>